

여전히 은행에 목매는 中企... IB, 모험자본 중개 '미흡'

자본시장법 시행 10년

(下) 자금조달 역할 평가

덩치 커졌지만 중개기능은 '약골'
자본시장서 자금 조달 기업 28%
中企 적극 활용토록 접근성 높여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이후 10년간 금융투자업의 덩치는 커졌다. 특히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커지고 투자은행 수의 규모도 4배로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자금 조달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크게 은행 대출(간접금융)과 자본시장(직접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은행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 2008년까지는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80%를 웃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는 크게 역전됐으나,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은행 대출의 비중이 70%선까지 증가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2009년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도입 전인 2008년 이전에 비해 절대값은 늘었지만 여전히 은행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 부문의 자금조달에서 내부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하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내부 자금이 투자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문의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높여야

기업의 자금 조달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외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연구원은 "외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본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모습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직전인 2008년 말 기업이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은 약 68조 5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은 약 23조

6000억원을, 중소기업은 약 45조원을 빌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은행에서 조달했다.

2008년 말 기업이 회사채나 주식 발행 등 자본시장을 이용해 조달한 자금은 2조 9000억원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9년 1월에도 은행 기업 대출은 7조 6487억원이었다. 이 중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3조 3824억원,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은 4조 266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동안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액수는 2조 9812억원으로 기업의 전체 자금 조달 비중의 약 28%였다.

조 연구원은 "실물(기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신생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담당해야 하는 '모험자본 공급'의 기능이다"고 덧붙였다. (세한뉴스 기자 ericbae1683@metrosoul.co.kr)

국내선 우량, 해외나가면 찬밥?... 국내 신평사 신뢰도 문제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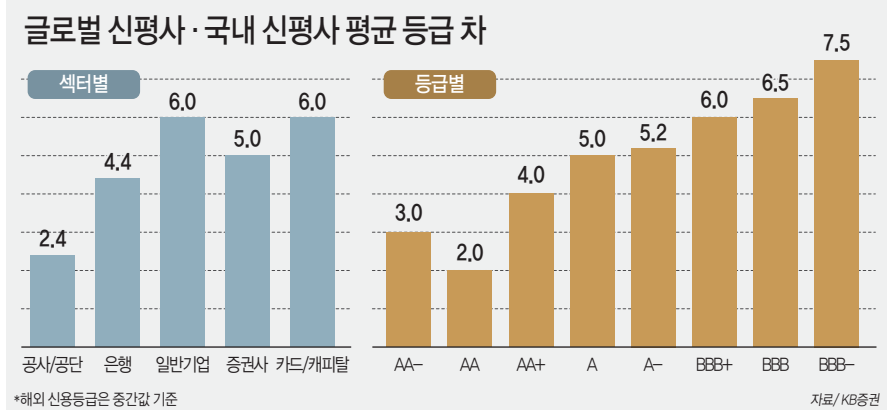
글로벌 신평사와 평균 등급차 6.0
하위 등급일수록 등급차 격차 커

"대기업 입김 등 체계·구조적 문제
소버린 리스크 반영 여부도 기인"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기업 '신용 인플레이'가 우려 수준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외 신평사로부터 받은 등급이 국내보다 최대 8계단 낮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신평사의 평가 신뢰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KB증권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대한 글로벌 신평사와 국내 신평사의 평균 등급(Notch)차는 6.0에 달한다. 다만 수준도는 3등급 차이에서 최대 8등급까지 다양하다.

캐피탈·카드사의 평균 등급차도 6등급



가량이다. 은행의 경우 특수은행은 2등급, 시중은행은 4등급 정도이다.

공사·공단은 2.4등급으로 큰 차가 없다. 영위 사업의 공공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 정부 지원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등급별로도 격차가 컸다.

'AA-'등급은 3.0 등급의 격차를 보였

다. 'AA'등급은 2.0등급차였다. 'A+'(4.0등급), 'A'(5.0등급), 'A-'(5.2등급), 'BBB+'(6.0등급), 'BBB'(6.5등급), 'BBB-'(7.5등급) 등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등급차가 컸다.

전문가들은 등급 격차가 큰 이유로 국내 신평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는다. 신평사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

가해주는 대가로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돈을 주는 '고객'의 신용 등급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더구나 신평사들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경우 그 기업을 회생 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다.

신용평가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신평사는 해당 기업의 국내 경쟁력만 따지고 모기업의 지원 등 한국 대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을 매긴다"며 "평가 수수료가 국내 신평사의 주 수입원인 현실에서 대기업 집단의 입김이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도 신용등급 거품형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신평사와 국내 신평사의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KB증권 전혜현 연구원은 "글로벌 신평사의 등급조정이 국내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의 방향성에 있어 참고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국내의 신용평가사의 등급 체계와 평가 방법론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면서 "해외 신용평가사의 방법론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됐다. 반면, 특정 국가의 산업적 특성이나 기업의 특성은 잘 반영되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버린 리스크(sovvereign risk·국가 신용 위험) 반영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글로벌 신평평가사의 등급과 국내 신평평가사의 등급은 공통적으로 부도율에 기반해 'AAA'에서 'D'까지 등급별로 각기 다른 신용위험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국내 신평평가사의 등급에는 대한민국의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국내 신평평가사의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AAA'로 간주한다.

(김민호 기자 kmh@)

하나금융투, 대구 자갈마당 개발에 금융지원

대구시 등과 4자간 업무협약 체결
5000억 규모 파이낸싱 대출 제공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5일 대구 중구 도원동 '자갈마당' 개발과 관련해 대구시와 하나자산신탁, 민간 개발 시행사인 도원개발과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로 하나금융투자는 부동산 금융분부를 통해 약 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PF론)을 제공하는 등 자갈마당 개발사업의 금융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도원동 자갈마당 일대 1만9080여㎡에 지하6층, 지상 49층 아파트 891가구와 오피스텔 267가구 등 1150여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8월 착공해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갈마당은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이



대구시 도원동 '자갈마당' 개발사업 계획 조감도.

집단 거주지를 형성할 때 공장을 함께 들여온 데에서 시작, 100년 넘게 이어진 성매매 집결지로 대구시는 최근 수년간 이 지역을 주거시설과 공원 등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는 "도원동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

한화생명 '더 간편한 건강중신보험' 고혈압 등 유병자 위한 '3대 성인병' 집중 보장

한화생명은 당뇨, 고혈압 등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유병자를 위한 '한화생명 더(The) 간편한 건강중신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경증 질환을 갖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고지항목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다.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최근 2년 내 입원·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이력 등이다. 고혈압, 당뇨는 물론 어떤 병력을 갖고 있어도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연령을 확대했다. 젊은 나이에도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30세부터 가입 가능하다. 기존 유병자 상품은 대부분 40세부터 가능하다.

주계약을 통해 사망뿐 아니라 3대 성인질환도 보장한다.

(김희주 기자 hj89@)

NH농협은행 스타트업 육성투자에 200억 펀드

아주IB투자·크레비스 파트너스와 혁신스타트업 육성투자 지원 협약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아주IB투자, 크레비스파트너스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혁신스타트업 육성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NH핀테크 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NH 디지털챌린지플러스(Challenge+)' 도입과 혁신스타트업 전용투자자금 'NH-아주 디지털혁신 펀드'를 조성해 국내 다양한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투자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는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성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난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1기를 모집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은행 본사에서 남영수 디지털금융부 부부장(왼쪽 두번째)과 아주IB투자 김지원대표(왼쪽 첫번째), 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아주 디지털혁신 펀드'는 약 200억원 규모로 스타트업 생애주기별 성장을 위한 지분투자 및 투자 멘토링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연계할 계획이다. 최우선적으로 'NH디지털 챌린지플러스' 참여기업과 NH핀테크 혁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